

대림절 제1주일/2020년 11월 29일

구약: 이사야서 64,5-9

서신: 고린도전서 1,3-9

복음: 마가복음서 13,24-31

해가 어두워지는 날이 오리니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막 13,1)

예루살렘 성전의 엄청난 규모와 그 웅대함에 놀라 감탄한 것이지요. 비록 바벨론의 침략으로 파괴되고, 그 후 재건되었다가, 다시 파괴되는 등, 역사의 부침을 겪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다윗 왕의 영광과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옹벽에 남아있는 돌들 가운데는 무게가 50톤 이상 나가는 것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는 길이가 15미터에 이르며 무게는 대략 300톤에 이른다고 하니,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¹⁾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막 13,2).

우리는 주후 66년부터 73년 사이에 전개된 유대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예루살렘 성전에서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한 로마 병사가 불붙은 나무토막 하나를 집어 들고, 다른 군인의 어깨 위로 올라가 황금 창문 안으로 던졌습니다. 치솟은 불길은 건잡을 수 없이 번졌고, 유대인들은 목숨을 돌보지 않고 불길을 잡으려고 했으나 속수무책(束手無策),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로마 정복군의 지휘관이자 후에 9대 로마제국의 황제로 즉

1) 조엘 마커스, 마가복음 II, 장성민 역, CLC, 2016, 1477.

위한 베스파시아누스(AD9-AD79)는 성전과 도성과 성벽의 대부분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했고,²⁾ 이로써 예수님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성전 파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따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막 13,4).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격변의 전환기는 징조 없이 일어나는 법이 없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구세주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난무하고,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뿐만 아니라’(막 13,6-8),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막 13,12-13)을 그 징조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서 저자는 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Claudius, BC10-AD54) 치하의 기근(재위 41년부터 54년/행 11,28), 주후 61년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지진과 63년에 일어났던 폼페이의 지진 등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³⁾ 가정의 해체와 식구들의 적대적 투쟁은 묵시문학에서 마지막 때의 타락 현상을 나타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정은 신앙의 보루로 생각되었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것입니다.⁴⁾ 그러나 이것이 어찌 고대 사회에서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시대도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지요.

2) J. 그닐카, 마르코복음(II), 한국신학연구소, 1986, 247.

3) J. 그닐카, 마르코복음(II), 한국신학연구소, 1986, 251.

4) J. 그닐카, 마르코복음(II), 한국신학연구소, 1986, 255.

도덕과 인륜이 무너지고, 자연재난이 시작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거짓 예언자들과 구세주들이 득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환기의 시대적 표징을 새로운 세상을 위한 ‘해산의 진통’의 시작으로 보고(롬 8,22),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환난이라고 합니다(막 1,19).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환난의 날들을 줄일 수 없지만, 주님은 자신이 뽑아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 주시니,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권면하십니다(막 13,13). 그러면, 그 환난이 지난 후,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싸여 구름을 타고 올 때에,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는 것이지요(막 13,24-27). 그러므로 제자들은 시대의 징조를 읽고,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막 13,33).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자신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단지 수동적으로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제자 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입증해야 할 과제를 짊어지게 된 것이지요(막 13,10).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막 13,31), 의지하여 환난의 때를 믿음과 인내로 이기면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개인적인 고난과 환난, 지구적 재난과 우주적 파국의 한 복판에서 고난을 인내하는 것도 벅찬 일인데, 모든 사람들이 고통 받는 암울한 시대에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전파해야 한단 말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마가복음서의 저자가 우주적 파국, 곧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리는 우주적 파국에 대한 표상을 예언자 이사야에게서 빌려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마

가복음서 저자의 관심은 역사의 종말과 우주의 파국과 그 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종말에 있을 환난과 고난을 종말론적 시간표의 마지막에 둬으로써 그것들을 상대화시킵니다. 다시 말해 그런 종말의 표징들과 환난들은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라, 곧 사라져 버릴 잠정적인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⁵⁾ 마가는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종말현상들이 아니라, 종말과 함께 시작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궁극적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사 65,17-18).

그래서 재난의 때, 파국과 환난의 때가 ‘기쁨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과 우주적 재난으로만 끝난다면,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졌고(막 13,31), 종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니,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종말은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은 재난과 환난을 위협과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사이비 종말론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새 창조의 기회인 것입니다.

‘재난’으로 번역되는 영어 ‘disaster’의 어원은 ‘떨어지다’라는 뜻의 ‘dis’와 ‘별’이라는 뜻의 ‘astro’가 합쳐진 것입니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지구와 충돌하면, 아마 지구는 공중 분해될지 모릅니다. 그 어떤 재난보다 두려운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함의(含意)는 별이 없으면, 하늘 길도, 땅 위의 방향도 잃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마땅한 가치, 우리가 인류와의 공생과 자연과의 상생을 위해 실현해야 할 마땅한 삶을 위한 나침반이 없는 것이 진정한 재난이라는 말이 아닐까요!

예언자 제2이사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주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셨지

5) 조엘 마커스, 마가복음 II, 장성민 역, CLC, 2016, 1567-1568.

만,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나님은 종일 팔을 벌리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달려가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셨습니다(이 65,1-4).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이 64,7).

예언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침략으로 망하는 재난보다 더 큰 재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는 것이지요(이 51,13).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이 66,2)고 말씀하신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드리는 데 있습니다(이 66,5).

‘코로나-19’의 제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의 유행은 진퇴를 거듭하겠지만, 서서히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제적 타격은 더 커질 것이고, 한국교회의 몰락도 가속화할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주요 6개 교단(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감, 예장 고신, 성결, 기장)의 교인수가 2011년부터(당시 880만 6,053명), 2019년까지, 지난 8년 동안에 140만 명이 줄었고, 2019년 현재 741만 2,150명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합동이 299만에서 256만 명으로 43만 8,000명 정도가 줄었고, 통합은 285만에서 250만 명으로 34만 5,000명이, 기감은 158만에서 128만으로 29만 8,000명이, 성결교(기성)는 59만에서 43만 명으로 15만 9,000명이, 기장은 30만에서 22만으로 약 8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작년(2019년) 한 해 동안의 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합동은 전년(2018년) 대비 10만 명이 줄었고(3.8% 감소세), 통합은 4만 7,000명(1.85%), 기감은 2,624명이 감소했고(0.2%), 기성은 2,939명(0.68%), 고신은 1만

9,000명(2.59%), 기장은 1만 2,000명(5.55%) 감소했습니다. 감소 비율로 따지면 기장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이 예장 합동입니다.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들인 이 6개 교단에서 1년간 감소한 교인의 숫자는 거의 18만 명에 달하는 것인데, 이것은 100명이 모이는 교회 1,770개가 사라져버린 셈입니다.⁶⁾

그리스도인의 수적 감소와 한국교회의 추락은 사실 오래 전부터 예견되었고,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령화와 출산을 저하라는 인구변동, 대형교회 목사들의 도덕성 문제, 세습, 재정불투명성, 이웃종교에 대한 배타성, 권력 친화적 정치성 등으로 야기된 공신력 상실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됩니다. 이단 단체들의 부각과 ‘코비드-19’의 대유행이 몰락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을 뿐이지요. 대형교회는 서서히 몰락할지 몰라도, 중소규모 교회들과 농어촌 교회들의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기후위기’는 한국교회에게만이 아니라 인류에게 재난의 징조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재난의 날에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고(막 13,27), 그들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터이니,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마 13,33). 주님께서 사방에서 모으신 선택된 사람들에게 역사와 우주의 종말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종말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는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 유럽의 언어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후투룸’(Futurum)이고, 다른 하나는 ‘아드벤투스’(Adventus)인데, ‘후투룸’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아드벤투스’는 ‘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대림절’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단어는 ‘아드벤투스’이지요.

그런데 과거와 현재로부터 발전하는 ‘후투룸’으로서의 미래는 결코 새로운 것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은 언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희망에 대한 아무런 동기도 주지 않습니다.

6) 조성돈, 통계로 본 한국기독교교세분석, 기독교사상, 2020년12월호, 31-40 참조.

다.⁷⁾

이와 달리 ‘아드벤투스’는 독일어로 ‘추쿤후트’(Zukunft)로 번역되는데, 그리스어로는 ‘파루시아’에 해당합니다. 세속 그리스어로 ‘파루시아’는 사람의 도착이나 사건의 발생, 축자적으로는 현재를 뜻하지요.⁸⁾ 그러므로 ‘아드벤투스’로서의 미래는 ‘되어가는 현재’(Futurum)가 아니라, ‘와있는 미래’(Adventus)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종말론이 고통스럽고 우울한 전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의 징조를 기회의 표징으로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이 43,18-19).

희망의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사 35,4; 40,5).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함께 오실 때, 그는 온 우주를 그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며, 그는 죽음을 영원히 삼켜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현재를 향하여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 전향을 가능하게 합니다.⁹⁾ 하나님의 향하여 오심(아드벤투스)과 인간의 회개의 통일성이 ‘성취된 시간’, 곧 ‘카이로스’이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입니다. 현재가 된 하나님의 미래가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원천이고, 그 미래 속에 우리가 튼튼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재난의 때를 기쁨의 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 후 기도>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회개로 맞이하오니,
생명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주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고전

7) 위르겐 몰트만, 오시는 하나님 - 그리스도교적 종말론, 김균진 역, 대한기독교서회, 2017, 59.

8) 위르겐 몰트만, 오시는 하나님 - 그리스도교적 종말론, 김균진 역, 대한기독교서회, 2017, 60.

9) 위르겐 몰트만, 오시는 하나님 - 그리스도교적 종말론, 김균진 역, 대한기독교서회, 2017, 58.

1,8), 코비드-19와 기후위기로 가까이 다가온 재난의 때를 새 창조의 기회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큰사랑을 감사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바친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의 제3차 대유행이 시작되어 온 국민이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져, 시름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으니,
생명의 주님,

‘코비드-19’ 백신과 치료약이 빨리 개발되어, 더 이상 목숨을 잃거나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난국을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상사 없이 수능시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오늘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모셨던 구유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을 비워, 주님 모시는 은총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의 기도 바치옵나이다. 아멘.